

석사학위논문

또래관계 프로그램이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박태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양선

2006년 8월

또래관계 프로그램이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지도교수 박 태 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4월 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제출자 김 양 선

김양선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6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또래관계 프로그램이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김 양 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지도교수 박 태 수

본 연구는 아동들에게 또래관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아동의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또래관계 프로그램은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2. 또래관계 프로그램은 사회적 기술의 하위영역인 협동성, 주장성, 공감능력, 자기통제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제주군 소재 H초등학교 4,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관계 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하는 아동 20명을 선정하여 무선 표집의 방법으로 각각 10명씩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또래관계 프로그램은 장현일(2003)의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 과 교육인적자원부가 초등학생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든 '자기리더십 프로그램'을 토대로 본 연구 대상에 알맞게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상담 프로그램의 실시는 연구자가 매주 2회씩, 5주간에 걸쳐 총 10회기를 하였으며, 한 회기마다 60-80분씩 소요되었다.

측정도구는 Gresham과 Elliott(1990)의 학생의 사회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한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Social Skills Rating System; SSRS)를 문성원(1997)이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 수정한

* 본 논문은 2006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척도 중 SSRS-학생용 39문항의 빈도 영역만을 사용하였다. 자료처리 분석은 SPSS for Windows 12.0k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 < .01$, $p < .05$ 수준에서 t검증을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관계 프로그램은 아동의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킨다.

둘째, 또래관계 프로그램은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타협하여 다른 사람과 협동하는 태도를 향상시킨다.

셋째, 또래관계 프로그램은 자신이 먼저 표현하여 관계를 시작하거나 주도하여 자기주장 능력을 향상시킨다.

넷째, 또래관계 프로그램은 타인의 갈등 상황을 공감하고 도와주어 또래 간의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킨다.

다섯째, 또래관계 프로그램은 자신의 감정이나 분노를 이성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절제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하면, 또래관계 프로그램은 아동의 사회적 기술의 향상에 효과가 있으며, 그 하위영역 중 협동성, 주장성, 공감능력, 자기통제의 향상에 효과가 있다. 즉, 또래관계 프로그램은 아동이 또래 접촉을 통하여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여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사회적 기술이 결핍된 아동의 사회적 행동 및 또래 관계의 개선을 위해 또래관계 프로그램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및 가설	3
II. 이론적 배경	5
1. 또래관계의 개념과 중요성	5
2. 또래관계의 기능	8
3. 사회적 기술의 개념	10
4. 또래관계와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13
5. 또래관계 프로그램의 구성	15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20
1. 연구 대상	20
2. 연구 설계	20
3. 연구 절차	21
4. 측정 도구	23
5. 자료 처리	25
IV. 연구 결과 및 해석	26
1. 연구 대상에 대한 동질성 검증	26
2. 가설 검증	27
V. 요약, 결론 및 제언	37
1. 요약	37
2. 결론	40
3. 제언	41
참 고 문 헌	42
Abstract	49
부 록	52

표 목차

<표Ⅲ-1> 또래관계 프로그램의 내용	22
<표Ⅲ-2> 사회적 기술 검사 영역별 문항 및 신뢰도	24
<표Ⅳ-1>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회적 기술 사전검사 비교	26
<표Ⅳ-2> 사회적 기술 하위영역의 사전 검사 비교	27
<표Ⅳ-3>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회적 기술 점수의 차이 비교 ..	28
<표Ⅳ-4>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협동성 점수의 차이 비교	30
<표Ⅳ-5>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주장성 점수의 차이 비교	31
<표Ⅳ-6>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공감능력 점수의 차이 비교	33
<표Ⅳ-7>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자기통제 점수의 차이 비교	34
<표Ⅳ-8>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하위영역별 점수의 차이 비교	36



[그림Ⅲ-1] 연구 설계	21
[그림Ⅳ-1]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회적 기술 점수의 차이 비교 ..	29
[그림Ⅳ-2]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협동성 점수의 차이 비교	31
[그림Ⅳ-3]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주장성 점수의 차이 비교	32
[그림Ⅳ-4]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공감능력 점수의 차이 비교	34
[그림Ⅳ-5]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자기통제 점수의 차이 비교	35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끊임없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타인들과의 관계가 만족스럽고 조화로울 때 보다 완성된 인간으로 발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성장과 발달은 저해되고 부적응으로 인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인간관계가 원활하고 조화로우려면 사회적 기술이 필요하다.

아동 또한 또래, 부모, 교사와 더불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아동이 속해 있는 가족의 구성원들과 또래들뿐만 아니라 아동 자신의 신체적 능력, 태도 및 의사소통 기술 또한 대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사회적 기술은 출생한 직후부터 시작하여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달한다. 그렇지만 사회적 기술은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능력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통해 훈련되어야 하는 기술이다. 과거에는 가정과 또래 집단, 지역사회 공동체가 아동의 사회적 기술을 익히고 습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가정의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가족 기능의 약화, 소수자녀 출산으로 인한 과잉보호, 인터넷의 보급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대인관계가 전혀 요구되지 않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오늘 날의 현실에서,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박탈되고 있는 형편이다.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면 아동 대 성인, 아동 대 아동간의 부

정적인 대인관계를 갖게 된다(정대영외, 1994). 많은 수의 아동들이 교실에서,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사회적 기술의 부족과 수줍음으로 인해 친구들에게 수용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서 친밀감과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며 또래관계에서 고립되거나 원만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현숙, 2003). 최근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서로 욕구와 목표가 달라 갈등이 되는 상황에서 적절히 타협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쉽게 짜증을 내고 분노하며, 때로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이 또래관계에서 지속될 경우 ‘집단 따돌림’ 현상이 생기기도 하며, 더 나아가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이후에 적응과 관련된 문제들을 발달시킬 위험이 높다(Parker & Asher, 1987)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기술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초등학교 교육과정 속에는 상담 영역인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사회성 기술, 효과적인 의사결정 기술 등의 영역에 대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학교는 사회적 기술 학습의 중요한 장이므로 초등학생의 또래관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오미자(2004)는 사회적 기술 훈련은 사회적 고립아의 사회 기술의 향상에 효과적이었으며, 정영이(2004)는 집단 괴롭힘 피해 초등학생을 위한 집단상담에서 집단 괴롭힘 피해아동의 사회적 기술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장미자(2004)는 교우관계 개선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켜, 서로의 감정 이해와 적극적인 자기주장을 할 수 있었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절제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은 관계적 공격행동 감소 및 친구관계의 질 향상에 영향을 주었으며(장현일, 2003), 또래관계 개선 집단상담은 따돌림 피해 아동의 사회적 고립 극복에 효과

가 있다고 하였다(오순화, 2003). 또래관계 프로그램이 친구관계의 질, 따돌림 피해아동의 사회적 고립 극복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또래관계 프로그램이 사회적 기술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밝힌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또래관계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훈련하고 집단 따돌림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또래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사회적 기술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또래관계 촉진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훈련할 수 있는 또래관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들의 사회적 기술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및 가설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 프로그램이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또래관계 프로그램은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2. 또래관계 프로그램은 사회적 기술의 하위영역인 협동성, 주장성, 공감능력, 자기통제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 또래관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비교

집단 간에 사회적 기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 또래관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비교 집단 간에 사회적 기술의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 협동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 주장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 공감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4 : 자기통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또래관계 프로그램이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서,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한 이론적 기초로 또래관계의 개념과 중요성, 또래관계의 기능, 사회적 기술의 개념 등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고찰해보고, 또래관계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또래관계의 개념과 중요성

또래란(peer)란 연령이 비슷하거나 성숙 수준이 비슷하여 일상적으로 함께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한다(Perry & Bussey, 1984). 또래관계란 또래들이 맺는 상호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수직적이기보다는 수평적 구조로, 또래 간에 평등하게 사회적 교환을 한다는 점에서 아동과 성인간의 사회적 교환과는 뚜렷이 구분된다(Hartup, 1992). 아동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애정, 협동, 결속력, 도움 등과 같은 사회적 지지 측면을 경험하기도 하고, 대립, 갈등, 처벌 등과 같은 부정적인 상호교환도 하게 된다(Parker & Asher, 1993).

‘또래관계’는 ‘친구관계’와 자주 혼용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하다. 또래 관계는 비슷한 나이 또래의 집단 내에서 개인이 맺고 있는 일반적인 관계를 일컫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연령이 강조된다.(Hartup, 1977). 또한 아동의 또래 관계는 주로 또래 집단 내에서의 아동의 지위나 또래 수용도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한 집단 내에서 맺는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친구관계는 주로 두

친구의 관계에 국한하여 사용되며 관계의 친밀함이나 호혜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이은혜, 고윤주, 1999), 경험을 공유해 온 두 사람 사이의 두 친구 사이에서의 관계를 의미한다(Bukowsky & Hoza, 1989). 즉, 친구관계는 두 친구 사이에서 경험되는 다양한 사회·정서적 지원 및 갈등 등에 초점을 맞춘다.

또래관계는 부모-자녀 관계와 같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써 동등한 대상간의 관계이며 권력에서 균형을 유지한다. 그러므로 아동은 또래집단 안에서 서로의 생각을 표현하고 갈등을 경험하며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평등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Hartup & Moore, 1990).

이 같은 개념들을 토대로 또래관계를 정의하면, 또래관계란 비슷한 나이나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들이 집단 내에서 평등하게 이루는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의 양상을 의미한다.

또래관계가 아동의 발달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또래관계에서 부여하는 기능이 부모나 성인과의 관계에서는 이루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다. 최근에 또래관계에 관심이 모아지는 또 다른 이유는 가족형태의 변화와 취업모의 증가, 조기 교육 추세 등 환경적 변화들이 아동의 생활경험을 변화시키고 아주 어린 연령부터 또래관계를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이숙, 최정미, 2000).

또래관계의 중요성은 Sullivan(1953)의 대인관계 이론과 Piaget(1965)에 의해 강조되었고 최근 20년간 경험적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이은혜, 1998, 재인용), 발달이론과 발달에 관한 연구들에서 ‘또래관계’라는 주제가 반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왔다(Damon, 1984; Hartup, 1983; Youniss, 1980).

Piaget와 Sullivan은 아동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역할과 규범을 배우고 사회적 조망수용 능력을 발달시키며 사회적 기술을

연습하게 된다고 보았으며(Hartup, 1983, 재인용), 특히, Sullivan(1953)은 아동기에 동년배의 동성 친구들과 맺은 친밀한 관계가 청소년기 이후 대인관계 적응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초기 어린 시절 경험한 관계의 결핍까지도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Parker와 Asher(1987)는 친구관계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들을 개관한 논문에서 아동기 또래 관계에서의 따돌림과 성인기 범죄, 정신병리, 학교생활 위축이 서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아동기 적응에서 또래관계가 발달적인 중요성을 가지며 또래관계가 이후의 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성태훈, 2003, 재인용).

또래집단의 중요성에 대해 Harris(1995, 1998)는 집단 사회화 이론으로 설명한다. 이 이론은 부모가 양육하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험 이외의 영역에서 아동의 사회화와 성격발달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아동은 사회화와 성격발달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아동은 또래집단을 모방하고, 또래집단과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이 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배우게 되며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발적이고 자동적으로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또래와 닮으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집단사회화 이론에서는 유전인자는 아이들에게 특정한 유형의 성격을 발달시키기 쉽도록 정해주지만 또래와 함께 하는 사회적 환경은 그것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 아동은 또래집단에 의해 사회화되며 그 집단은 바로 그들에게 심리적으로 의미 있고 주관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적절한 행동과 태도에 대한 규칙과 표준을 얻게 해 준다고 설명한다(이사라, 2000, 재인용).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아동은 또래관계를 통해 자유롭게 서로의 생각을 표현하며 비슷한 경험을 함께 나누고 여러 가지 행동과 사

회적 지식을 함께 배워 나간다. 이렇게 또래 속에서 인정받고 소속되는 체험은 또래들과의 어울림,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 사회적 기술 습득 등 아동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경험하는 또래관계의 특성이 각자의 인성 형성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들의 또래관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또래관계의 기능

아동들에게 있어 또래관계가 수행하는 기능에 대해 학자들마다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있다. 또래관계의 기능에 대한 분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ukowski와 Hoza(1989)는 또래관계가 제공하는 기능을 사회적 기술의 습득을 돕고, 사회·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며, 자아개념을 발달시키는 세 기능으로 분류했고(구지은, 2002, 재인용), 윤진(1984)은 또래관계의 가치와 기능으로서 서로 자극을 주는 ‘자극가치’와 욕구 해결을 위해 협조할 것으로 보는 ‘이용가치’, 지원과 격려를 해주는 ‘자아지지가치’의 세 기능으로 보았다.

Azmitia(1988)는 아동 발달에 있어서의 또래관계는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았다. 첫째,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큰 사회 관계망 내에서 스스로의 정체감을 발견하게 된다. 둘째, 아동들은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타인의 관심사에 대한 이해,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능력 등을 포함한 사회 인지적 기술의 기초를 발달시키게 된다. 특히 친한 친구관계의 경우는 개인상호적으로 보다 민감해지게 만들고, 친밀감을 만들며 상호적 이해 수준을 높일 수 있게 하

므로 이후 개인 간 적응에 필요한 기술 습득을 촉진한다. 셋째, 또래들은 신체적·인지적 기술들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을 서로 주고받게 되고, 이러한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타인의 인정을 받게 된다. 넷째, 또래 간 상호 작용은 부모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친숙하지 않거나 위협적인 상황에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이은혜와 고유주(2000)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친구관계의 질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는 친구의 기능을 긍정적 기능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해 다루었으며, Mendelson과 Aboud(2000)는 측정도구에서의 정서적 안정, 신뢰, 도움, 친밀감, 교재의 즐거움 외에 칭찬과 격려 등을 통해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주는 ‘인정’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또래관계의 기능에 부정적 기능을 포함시키는 것에 관한 견해는 연구에 따라 다르다. 이은영(1999)은 청소년기의 우정관계는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한 교우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친구관계의 기능에 부정적 기능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았고, 이은혜 등(1999)은 갈등이나 불만과 같은 친구관계의 부정적 기능은 응답자의 감정이 포함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타인의 행동에 대한 지각과 자신의 감정에 대한 지각을 구분하기 위해서, 친구의 기능을 긍정적인 기능으로 제한하고 있다.

송명자(1997)는 또래의 기능에 대하여 다음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또래는 서로에게 중요한 역할 모델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놀이·운동·교과학습 등 여러 장면에서 아동들은 또래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며 이를 내면화함으로써 자신의 것으로 삼게 된다. 또한 또래의 성공과 실패를 관찰함으로써 자신이 해야 할 행동과 해서는 안 될 행동을 구별하게 된다.

둘째, 또래는 서로에게 중요한 강화자가 된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에는 학급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아동의 칭찬이나 비난이 강

력한 영향을 미친다. 학급 내에서 서로를 돕고, 협동하며,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는 풍토를 만들어주면 이 시기 아동들의 긍정적인 사회적 발달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셋째, 또래는 아동에게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사회적 비교의 기능을 갖는다. 입학 전 아동기부터 아동들은 자신이 속한 또래집단에 비추어 자신의 성격·가치·능력 등을 비교·평가하며, 이런 평가 결과는 자아상과 존중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넷째, 또래의 사회적 지지 기능이다. 사회적 지지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타인이 주는 실제적·정신적 지원을 뜻한다. 아동은 또래를 통해서 함께 있어주거나 경험을 공유해 주는 동반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종합해 보면, 또래는 서로에게 중요한 역할모델로, 강화자로, 사회적 지지의 기능을 담당한다. 아동은 또래관계를 통해 자유롭게 서로의 생각을 표현하며 비슷한 경험을 함께 나누고 여러 가지 행동과 사회적 지식을 함께 배워나가면서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3. 사회적 기술의 개념

사회적 기술에 대한 정의는 인지적인 측면과 행동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관점, 사회적 기술을 사회적 능력의 하위 개념 또는 사회적 유능성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으로 보고 이와 관련하여 맥락적으로 접근하는 관점, 생태학적으로 접근하는 관점 등 다양하다. 그리고 그 하위목록이 다양하고 특성상 매우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관점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Ladd와 Mize(1983)는 사회적 기술을 인지와 행동을 문화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혹은 대인간의 목표를 지향한 통합된 행동과정으로 조직하는 아동의 능력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기술이란 사회적 능력이라는 광범위한 개념 속에서 정의되어지는데, 사회적 기술은 과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개인적인 특별한 행동능력이다. 즉 사회적 기술은 사회적 맥락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친사회적 행동을 말한다. 친사회적 행동이라는 것은 이타주의, 도우는 것, 나누어 가짐, 보살펴주는 것과 동정, 친절, 협동, 관대함 등을 포함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뜻한다(김혁곤, 1992, 재인용).

Foster와 Ritchey(1979)는 사회적 기술을 상호 작용하는 대상과 궁극적인 결과를 일으키고 유지하며 증가시키는 것과 같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기술로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정의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친사회적 행동 특성을 사회적 기술에 포함시켰다(박진재, 2001, 재인용).

McFall(1982)은 사회적 기술이란 어떤 구체적인 요소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상의 기술이라 하였고, Kelly(1982)는 대인관계에서 사용하는 학습된 행동, Phillips(1985)는 자신의 권리, 요구 또는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타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았으며, Gambill(1983)은 친밀감의 정도와 관련지어 사회적 기술을 정의하였다(이춘자, 2000, 재인용).

Gresham(1988)은 사회적 기술을 주어진 상황에서 아동이 사회적 결과를 예측하면서 행하는 행동으로 설명하고, 이를 사회적 유능성을 구성하는 하위영역으로 보았다. 사회적으로 유능하다는 것은 다양한 환경과 장면에 적합한 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사회적으로 적합한 기술의 개념이 사회적 기술이다(유숙희, 2003, 재인용).

Walker(1988)는 사회적 기술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주도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타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수 있고, 적절한 방법으로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과 또래에서 수용되고 학급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상호작용기술, 대화기술, 친구를 사귀는 기술과 사회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 요소로는 대인관계 관련 기술, 자신과 관련된 행동, 학업능력 행동, 또래 수용, 대화기술, 자기주장의 요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창호, 2003, 재인용).

Gresham과 Elliot(1990)는 사회적 기술을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반응을 피하게 하는 행동으로 예를 들면, 도와주기, 말 걸기, 도움 요청하기, 칭찬하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등의 인사말하기 등이 사회적 기술의 예라고 하였다. 이들이 1990년에 고안한 SSRS(Social Skills Rating System)에서는 사회적 기술을 협동, 자기주장, 공감, 자기 통제로 규명하였다. 협동이란 남을 돕고 자료를 교환, 공유하며, 규칙이나 지시를 따르는 등의 행동을 의미한다. 자기주장은 다른 사람에게서 정보를 구하고, 자신을 소개하며, 또래로부터의 압력이나 모욕 등의 행동에 반응하는 등 자신이 먼저 주도적으로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공감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느낌과 관점에 대해서 관심과 존경을 보여주는 행동이며, 자기 통제는 짓궂은 놀림에 적절히 반응하는 것과 같이 문제 해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인지적 과정으로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잘 조절하고 적절히 타협하는 행동양식을 의미한다(한영주, 1999,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Gresham과 Elliot(1990)의 정의를 근거로 하여 사회적 기술을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반응은 피할 수 있는 행동으로 정의한다.

4. 또래관계와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아동이 성장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 대상은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관계를 맺는 형태도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진다. 그 과정에서 아동에게 주어지는 발달적 과제도 변화하는데, 아동기에 이르면 부모-자녀 관계 뿐만 아니라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해진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핵가족화, 자녀수의 감소, 취업모의 증가로 인해 아동이 일찍부터 보육기관 등에서 또래 관계를 경험하고 많은 시간을 또래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또한 아동은 과거에 비해 더 오랜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으며 방과 후에는 학원에 다니고 방학 동안에도 여러 집단 활동에 참여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에 의해 아동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또래와 보내게 되며, 따라서 아동에 대한 또래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커지게 되었다.

Ladd(1990)는 적절한 또래관계를 형성하여 또래수용도가 높은 아동들은 학교생활이 즐겁고 학습에 대한 어려움이 적으며, 범죄행동이나 비행이 적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기에 친구로부터 배척의 경험을 갖게 되면 성장함에 따라 부정적인 성격을 갖게 되며 자기회이나 인간관계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친구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아동들은 후에 더 많은 정신적 치료가 요구되었다고 한다(윤영민, 1992, 재인용). 이는 또래집단에서의 친구관계가 이후의 원만한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룬다는 점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아동기는 또래집단이 형성되는 시기이고 또래집단에는 그들만의 고유한 행동기준이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속한 또래집단에 의해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행동 특성을 지닌 아동은 집단에 쉽게 수용되고, 그런 특성을 갖지 못한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또래집단에 덜 수용된다(Shaffer, 2000). 이 시기에 또래집단에 수용되는 경험은 자

아개념의 형성이나 사회적 만족 뿐 아니라 아동기 이후의 사회적 적응 및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된다(Asher & Wheeler, 1986).

아동이 또래집단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은 물론 일상의 모든 면에서 안정감이 생기게 되고, 또래 상호작용을 통해 정상적이고 적응적인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되어 아동의 사회성, 성격, 정서, 인지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이 시기의 아동들이 기초적인 인지적,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고 실수나 실패를 하게 되면 소외감, 부적절감과 열등감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송명자, 1995).

Heaven(1994)는 친구는 지지망, 자기 가치감 증진, 그리고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역할을 한다고 했으며 Buhrmester 등(1985)은 또래와의 친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외로움, 소외감, 그리고 심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Asher 등(1990)은 아동이 또래와 경험하는 상호작용의 많은 부분에서 정교한 사회적 기술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친구를 만드는 기술, 또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하는 기술, 또래의 괴롭힘에 대항하는 기술, 또래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 등 매우 다양하다. Coie 등(1983)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또래수용과 또래지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기술의 사용 여부가 많이 관련된다는 사실이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또한 장미자(2004)는 교우관계 개선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켜, 서로의 감정 이해와 적극적인 자기주장을 할 수 있었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절제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장현일(2003)은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은 관계적 공격행동 감소 및 친구관계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오순화(2003)는 또래관계 개선 집단상담은 따돌림 피해 아동의 사회적 고립 극복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또래관계가 촉진되면 관계적 공격행동을 감소시키고 친

구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며, 따돌림 피해아동의 사회적 고립 극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또래관계가 좋아지면 사회적 기술도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아동은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또래집단 내의 다른 아동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또래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다양한 환경과 장면에 적합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면서 사회에 적응해 나간다.

5. 또래관계 프로그램의 구성

아동은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지지의 범위가 가정 안에서 가정 밖으로 커져가고, 사회적 지지자로서 또래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며, 또래의 기능 중 공감과 사회적 지지의 기능이 점차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서 공감과 사회적 지지는 또래 관계에 있어서 상호간에 꼭 필요한 기술이다. 이러한 관계 기술은 또래 관계나 친구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하다(송명자, 1997)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은 1998년에 대구광역시 청소년종합상담실에서 청소년의 자기성장, 또래관계 증진,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개발 보급되었다(대구광역시 청소년상담실, 1998).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초등학교에 적용시키기는 어려운 점이 많아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 연구되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1994년 이래 5종의 또래 상담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 개발된 3종의 또래상담프로그램은 각각 또래상담 기본자질 훈련 프로그램(2004), 갈등관리 프로그램(1995), 좌절관리 프로그램(1996)으로, 청소년 또래들이 상담자의 역

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훈련과 친구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좌절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인성적 측면, 기술적 측면, 실천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년 또래 상담자 훈련은 일반 상담훈련 모델에서 제시하는 의사소통기술을 잘 익히는 것 외에도 또래 상담자 자신이 원만한 친구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건강한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내용이 보장되고 1997년 친구되기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개발과정을 거쳐 또래 상담자의 기본 역할을 ‘친한 친구가 되어 주는 것’ ‘대화하는 친구가 되어 주는 것’ ‘도움을 주는 친구가 되어 주는 것’으로 종합하여 또래상담자의 훈련 프로그램을 통합하였다.(이상희, 노성덕, 이지은, 2000, 재인용)

유병숙(2003)은 또래상담의 예비 단계로서 또래 관계를 증진시키고, 문제의 예방과 발달을 촉진하는 과정으로서의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구안하였다. 또래상담프로그램(청소년상담원, 2000)을 주축으로 ‘친한 친구 되기’를 강조하여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조망적인 시각을 갖도록 촉진하고, 친구의 외부적 행동뿐만 아니라 내부적·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친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과정으로는 친밀감 형성하기, 신뢰감형성하기, 자기 탐색 및 자기이해, 자기수용, 바람직한 나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 조작기인 아동들에게 언어적 자기표현 보다 아동들에게 보다 익숙한 미술표현, 신체표현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또래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의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장현일(2003)은 또래상담자 증진 프로그램(한국청소년상담원, 2001), 품성계발 프로그램(한국청소년상담원, 2001), 친구사귀기 캠프 프로그램(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2001), 심성계발 프로그램(김희순,

2000), 주장증진 프로그램(이기현, 2000), 분노조절 증진 프로그램(김성혜, 1999) 등 선행연구에 쓰였던 프로그램을 아동의 또래관계를 촉진하는 훈련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여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여기에는 자기 이해와 대인관계, 의사소통, 분노조절과 문제해결 등 또래 관계 촉진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훈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아동의 관계적 공격행동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친구관계 질의 부정적 측면(갈등, 경쟁)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오순화(2003)는 또래관계 개선 집단상담을 사회적 회피성향 감소, 사회적 존중감 향상, 사회적 기술 향상 단계로 구성하여 5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따돌림 피해 아동의 사회적 고립 극복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또래관계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또래관계를 촉진하고 따돌림 피해 아동의 사회적 고립 극복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또래관계 프로그램은 사회적 기술을 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장현일(2003)의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과 교육인적자원부가 초등학생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든 '자기리더십 프로그램'을 토대로 본 연구 대상에 알맞게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아동에게 또래관계를 촉진하는 공감훈련, 의사소통 훈련, 갈등해결 훈련, 집단 따돌림 해결 등으로 구성하였다. 또래관계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구성원들이 또래관계에 있어서 각자가 경험하는 어려운 문제를 서로 이해하도록 하고, 각 구성원들의 특성에 따라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했으며, 실제 연습을 통하여 사회적 기술을 익히도록 구성하였다.

또래관계 프로그램은 총10회기이며, 친구만나기(1~2회기), 친한 친구 되기(3~4회기), 대화하는 친구 되기(5~8회기), 도움 주는 친구 되기(9~10회기)의 크게 네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프로그램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친구만나기’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감 형성과 나에 대한 이해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1회기 ‘나와의 약속’에서는 구성원들이 함께 활동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친밀감, 신뢰감을 갖게 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하고 동기를 북돋울 수 있도록 하고, 2회기 ‘너를 보여줘’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솔직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친구의 의미를 인식하고 친구관계에 필요한 신뢰감을 쌓을 수 있도록 하였다.

‘친한 친구 되기’에서는 나와 타인과의 갈등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3회기 ‘나랑 친구랑 다르군요’에서는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할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4회기 ‘서로 존중하기’에서는 개인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개인의 차이에 대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였다.

‘대화하는 친구 되기’에서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화 방법들을 익히기 위해 5회기 ‘대화하는 친구’에서 친구 간에 대화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대화할 때의 어려움을 경험하도록 하였고, 6회기 ‘내 마음 내 마음’에서는 의사소통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알고 대화의 기본자세를 익히고 공감 훈련을 구체적인 말과 행동으로 익히도록 하였다. 7회기 ‘더 가까워지고 싶어!’에서는 스스로 공감 받고 싶은 심정을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며 서로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의 차이를 확인해보고 8회기 ‘함께 생각해 보아요’에서는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해결할 방법을 찾도록 하였다.

‘도움 주는 친구 되기’에서는 부정적인 정서와 갈등, 분노에 대해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9회기 ‘친구와 다투지 않아요’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찾고 분노를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였다. 10회기 ‘도움을 주는 친구로...’에서는 또래관계에서의 중요한 점과 실천해야 할 점을 인식하며, 또래관계 훈련 과정을 통해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소감문을 작성하고 마무리를 하였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이 장에서는 또래관계 프로그램이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연구한 방법 즉, 연구 대상, 연구 설계, 연구절차, 측정도구, 자료처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또래관계 프로그램이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남제주군 H초등학교 4, 5학년 학생 2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취지를 아동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희망하는 아동 중 부모의 동의를 얻은 20명을 무선 표집의 방법으로 각각 10명씩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배정하였다.

2. 연구 설계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또래관계 프로그램을 실시한 상담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비교집단을 비교하여 실험처치 결과를 평가하는 ‘사전-사후 · 상담 비교 집단 설계’이다. 이 설계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Ⅲ-1]과 같다.

상담집단	O ₁	×	O ₂
비교집단	O ₃		O ₄

O₁ , O₃ : 사전검사

O₂ , O₄ : 사후검사

x : 또래관계 프로그램 실시

[그림Ⅲ-1] 연구 설계

3. 연구 절차

1) 연구의 진행절차

이 연구의 과정은 사전검사, 상담·비교집단의 구성, 또래관계 프로그램의 적용, 사후검사, 통계처리 및 자료 분석 순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H초등학교 4, 5학년 아동들에게 집단 상담의 내용, 방법, 기간 등을 설명한 뒤 희망아동 20명을 선정하고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무선 배치하였다.

상담집단에게는 또래관계 프로그램을 실시·적용하였고, 비교집단에게는 상담기간 중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다. 상담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고, 매주 2회, 60-80분씩 5주간(2005년 12월 5일부터 2006년 1월 5일)에 걸쳐 총 10회기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실시를 마친 후, 사전검사에 사용했던 동일한 검사도구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2) 또래관계 프로그램의 구성

본 연구에서의 또래관계 프로그램은 사회적 기술을 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장현일(2003)의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과 교육인적자원부가 초등학생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든 ‘자기리더십 프로그램’을 토대로 본 연구 대상에 알맞게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아동에게 또래 관계를 촉진하는 공감훈련, 의사소통 훈련, 갈등해결 훈련, 집단 따돌림 해결 등으로 구성하였다.

또래관계 프로그램 전체의 내용은 <표Ⅲ-1>와 같다.

<표Ⅲ-1> 또래관계 프로그램의 내용

영역	회기	내용
친구 만나기	1	· 나와 의 약속 - 이완훈련, 프로그램 안내, 서약서 작성
	2	· 너를 보여줘! - 자기 이해, 신뢰감 형성
친한 친구 되기	3	· 나랑 친구랑 다르군요. - 자기 및 타인 이해 활동, 갈등 해결
	4	· 서로 존중하기 - 자기·타인이해 활동, 갈등 해결
대화하는 친구 되기	5	· 대화하는 친구 - 의사소통 훈련
	6	· 네 마음 내 마음 - 의사소통 훈련, 감정표현 훈련, 자기·타인 이해, 신뢰감 형성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가까워지고 싶어! - 역할 놀이, 공감연습, 의사소통훈련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생각해 보아요 - 집단 따돌림의 이유, 문제 해결, 신뢰감 형성
도움 주는 친구 되기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와 다투지 않아요 - 감수성 훈련, 분노 조절 훈련, 공감 연습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움 주는 친구로. - 경험나누기, 행동수정-보상, 소감문작성

4. 측정 도구

1) 사회적 기술 검사



Gresham과 Elliott(1990)는 학생의 사회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Social Skills Rating System; SSRS)를 개발하였다. SSRS는 교사용, 학생용, 부모용의 3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으며, 3-18세 아동의 사회적 행동의 폭넓은 범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SSRS는 협동(cooperation), 주장(assertion), 책임감(responsibility), 공감(empathy), 자기 통제(self-control)의 5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생용은 협동, 주장, 공감, 자기 통제 4요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요인의 문항은 빈도와 중요성 두 영역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빈도 영역은 학생이 특정 사회 기술을 얼마나 자주 보이느냐를 측정하는 것이다. 중요성 영역은 평정자로 하여금 교실에서 기능하는데 있어서(교사용), 사회적 발달과 관련하여(부모용),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학생용)에서 특정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게 지각되는

가를 평정 한다.

Gresham과 Elliott(1990)에 따르면, 최근 연구에서는 빈도 영역만이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빈도 영역만을 사용하였다. 문항점수는 각 영역에서 얻어진 점수의 합으로 이것이 사회 기술 능력의 점수가 된다. SSRS-학생용의 신뢰도는 .83이다.

본 연구에서는 Gresham과 Elliott(1990)의 SSRS를 문성원(1997)이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변안, 수정한 척도 중 SSRS-학생용 39문항의 빈도 영역만을 사용하였다. 문성원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89이었다.

<표Ⅲ-2> 사회적 기술 검사 영역별 문항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수	해당문항번호	Cronbach's α
협동성	9	6, 9, 11, 13, 17, 31, 35, 36, 37,	.89
주장성	10	1, 3, 4, 16, 20, 23, 26, 30, 33, 38	
공감능력	10	2, 5, 8, 12, 21, 24, 25, 28, 29, 39,	
자기통제	10	7, 10, 14, 15, 18, 19, 22, 27, 32, 34,	
전체	39		

사회적 기술 검사는 협동성 요인 9문항, 주장성 요인 10문항, 공감능력 요인 10문항, 자기 통제 요인 10문항으로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는 5단계 평정척도로서 형식은 Likert식을 채택하였다. 각 문항의 반응은 '정말 그렇다'에 5점, '대체로 그렇다'에 4점, '보통이다.'에 3점, '별로 그렇지 않다'에 2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는 방식으로, 각 학생이 얻을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39점~195점이다.

협동성 요인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타협하며, 자신이 할 일을 책임감 있게 마무리

짓는 능력을 측정하고, 주장성 요인은 자신이 먼저 표현하여 관계를 시작하거나 주도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공감 요인은 자신의 갈등 상황 시 친구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거나, 타인의 갈등 상황을 공감하고 도와주거나, 친구의 장점을 칭찬하고 먼저 인사하는 등의 또래간의 대인 관계 능력을 측정한다. 자기 통제 요인은 친구들이 놀림이나 이성과의 관계, 어른과의 갈등과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5. 자료 처리

자료의 분석은 SPSS for Windows 12.0k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담집단에 대해 또래관계 프로그램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사회적 기술 검사를 실시하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이 장에서는 또래관계 프로그램이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검사와 프로그램 투입 후 사후검사의 차이를 비교·검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1. 연구 대상에 대한 동질성 검증

사회적 기술에 대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t검정한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IV-1>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회적 기술 사전검사 비교

구분 집단별	M	SD	t
상담집단(n=10)	118.70	17.23	0.01
비교집단(n=10)	118.60	16.76	

위의 <표IV-1>의 사회적 기술의 사전 검사 비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담집단의 사회적 기술(M=118.70) 과 비교 집단(M=118.60)의 평균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두 집단은 서로 사회적 기술이 동질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술의 각 하위영역에 대한 두 집단 간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IV-2>와 같다.

<표IV-2> 사회적 기술 하위영역의 사전 검사 비교

구분 하위영역	상담집단(n=10)		비교집단(n=10)		t
	M	SD	M	SD	
협동성	28.20	3.97	27.00	5.50	0.56
주장성	29.60	4.09	31.30	4.42	-0.89
공감능력	30.00	5.21	30.20	4.59	-0.09
자기통제	30.90	5.74	30.10	5.32	0.32
전체	118.70	17.23	118.60	16.76	0.01

위의 <표IV-2>의 사회적 기술 하위영역의 사전검사 비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사회적 기술 수준이 동질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가설 검증

1) 가설 1의 차이 검증

가설 1 : 또래관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 간에 사회적 기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또래 관계 프로그램을 실시 한 후의 사후 검사에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사회적 기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IV-3>과 같다

<표IV-3>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회적 기술 점수의 차이 비교

구분 집단별	사전		사후		t
	M	SD	M	SD	
상담집단(n=10)	118.70	17.23	144.30	14.65	3.81**
비교집단(n=10)	118.60	16.76	119.50	14.47	

**p<.01

<표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또래 관계 프로그램을 실시한 상담 집단(M=144.30)과 실시하지 않은 비교집단(M=119.50) 간의 사회적 기술 전체의 사후검사 비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81, p<.01). 따라서 또래관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 학생들의 사회적 기술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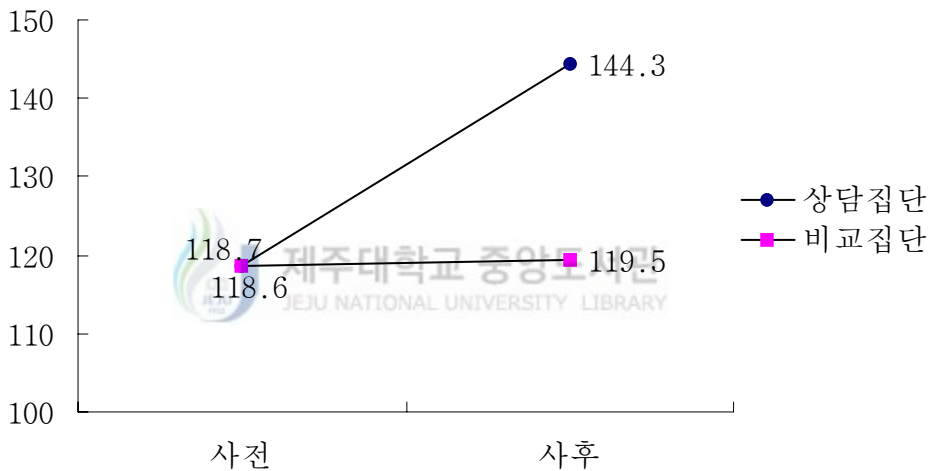
이 결과 또래관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 학생은 비교집단 학생보다 사회적 기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 한 후 아동의 관계적 공격 행동이 감소하고 친구관계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장현일(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따돌림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또래관계 개선 집단상담을 실시 한 후 사회적 기술이 향상되었다는 오순화(2003)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친구관계 개선 집단상담과 교우관계증진 프로그램이 따돌림 아동의 사회기술을 향상시켜 사회성과 인간관계 향상에 영향을 주었다는 현호웅(2000)과 홍기칠(2002)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프로그램의 구성과 측정도구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에는 자기 이해와 대인관계, 의사소통, 분노조절과 문제해결 등 또래관계 촉진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훈련할 수 있는 내용이 도움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회적 기술 사전, 사후 평균점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Ⅳ-1]과 같다.



[그림Ⅳ-1]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회적 기술 점수의 차이 비교

2) 가설 2의 검증

가설 2 : 또래관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비교 집단 간에 사회적 기술의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는 또래관계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사후검사에서 상담집단

과 비교집단 간의 사회적 기술의 하위영역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협동성 하위영역에서의 차이 검증

가설 2-1 : 협동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래관계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사후검사에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협동성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IV-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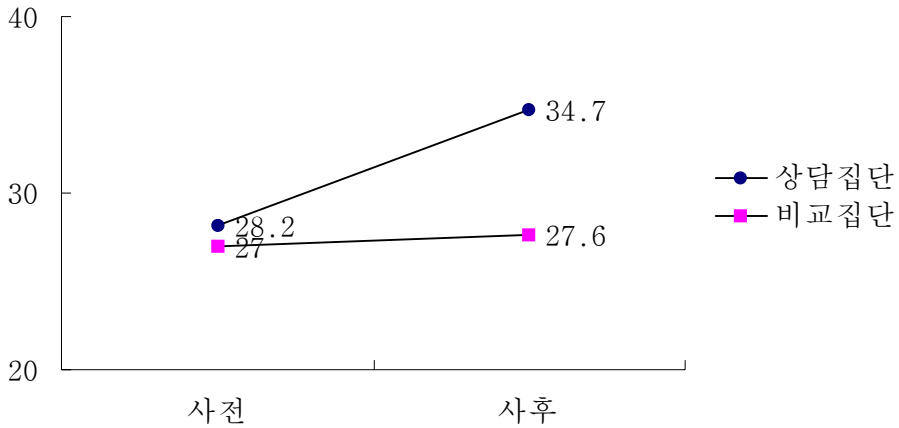
<표IV-4>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협동성 점수의 차이 비교

집단별	구분	사전		사후		t
		M	SD	M	SD	
상담집단(n=10)		28.20	3.97	34.70	3.74	3.53**
비교집단(n=10)		27.00	5.50	27.60	5.15	

**p<.01

<표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동성 영역에 대한 사후검사 비교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53, p<.01). 즉, 또래관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의 협동성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 결과는 또래관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은 타인 이해활동을 통해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타협하며, 개인의 차이에 대해 존중하고 서로 돕는 태도를 기르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협동성 영역의 사전, 사후 평균점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Ⅳ-2]와 같다.



[그림Ⅳ-2]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협동성 점수의 차이 비교

(2) 주장성에서의 차이



가설 2-4 : 주장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래관계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사후검사에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자기통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Ⅳ-5>과 같다.

<표Ⅳ-5>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주장성 점수의 차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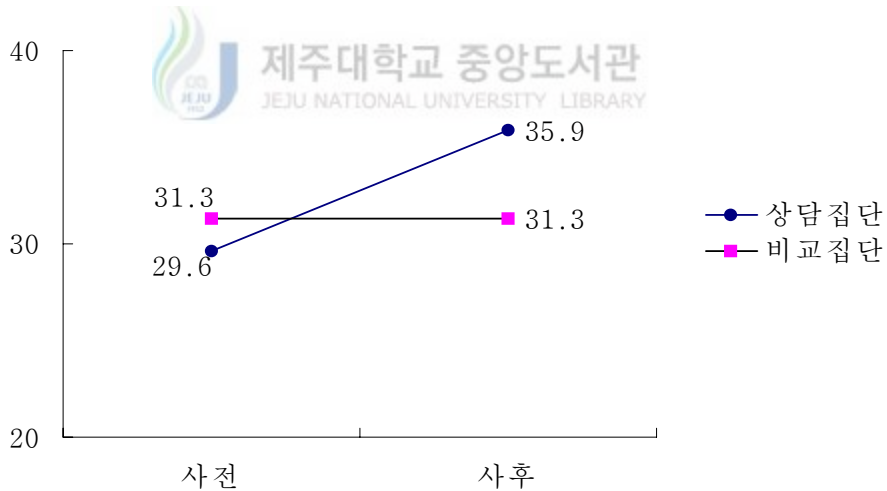
구분 집단별	사전		사후		t
	M	SD	M	SD	
상담집단(n=10)	29.60	4.09	35.90	4.41	2.64*
비교집단(n=10)	31.30	4.42	31.30	3.30	

*p<.05

<표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장성의 사후검사에서 상담집단(M=35.90)이 비교집단(M=31.3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64, p<.05$). 즉, 또래관계 프로그램을 받은 상담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주장성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는 교우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실시 한 후 실험집단의 자기 주장 능력 사후 검사가 사전검사에 비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장미자(200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 결과는 또래관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이 자신이 먼저 표현하며 관계를 시작하거나 주도하는 능력이 길러진 것이라고 해석된다.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협동성 영역의 사전, 사후 평균점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IV-3]과 같다.



[그림IV-3]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주장성 점수의 차이 비교

(3) 공감능력에 대한 차이 검증

가설 2-2 : 공감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래관계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사후검사에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의 공감능력의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IV-6>와 같다.

<표IV-6>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공감능력 점수의 차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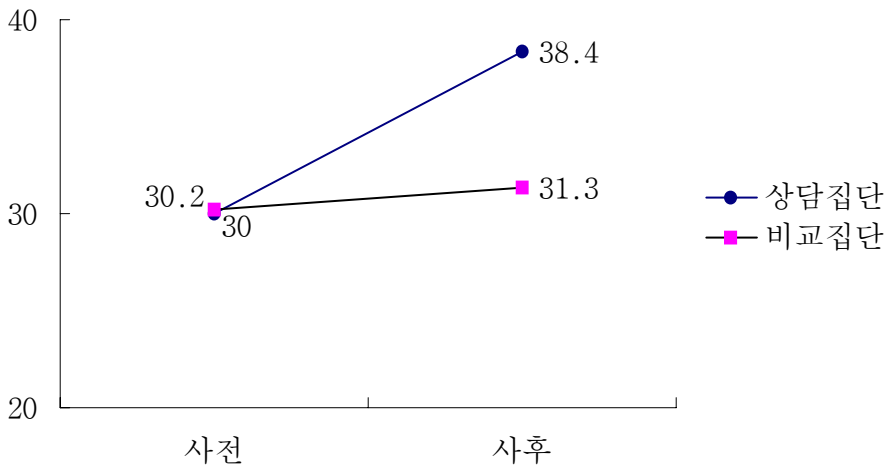
구분 집단별	사전		사후		t
	M	SD	M	SD	
상담집단(n=10)	30.00	5.21	38.40	4.81	3.32**
비교집단(n=10)	30.20	4.59	31.30	4.76	

**p<.01

<표I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감능력의 사후검사에서 상담집단(M=38.40)이 비교집단(M=31.3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32, p<.01). 즉, 또래관계 프로그램을 받은 상담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공감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는 교우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실시 한 후 실험집단의 공감 능력 사후 검사가 사전검사에 비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장미자(200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또래관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이 자신의 갈등상황 시 친구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며, 타인의 갈등상황을 공감하고 도와주거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느낌과 감정에 대해 관심과 존중을 보여주는 능력이 향상된 결과라고 해석된다.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공감능력 영역의 사전, 사후 평균점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IV-4]와 같다.



[그림 IV-4]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공감능력 점수의 차이 비교

(4) 자기통제에서의 차이 검증



가설 2-3 : 자기통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래관계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사후검사에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자기통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IV-7>과 같다.

<표IV-7>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자기통제 점수의 차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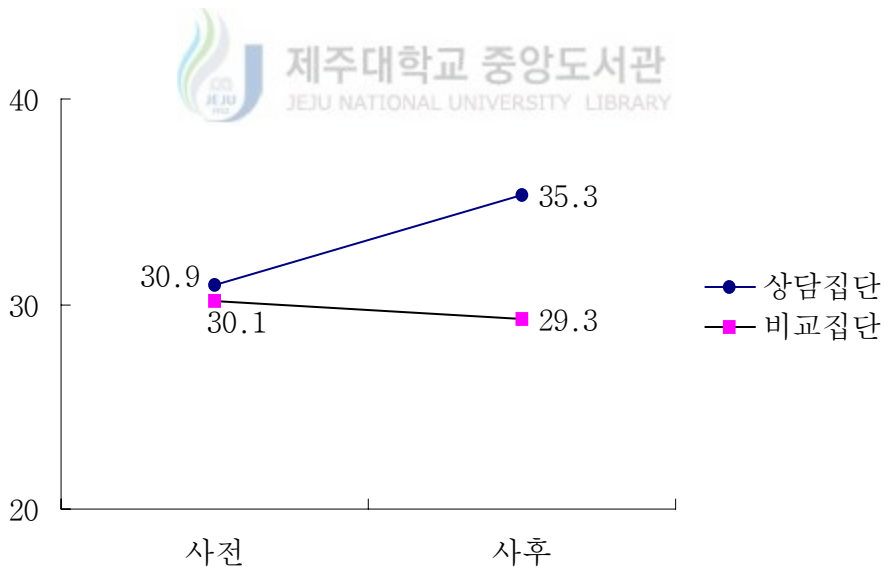
구분 집단별	사전		사후		t
	M	SD	M	SD	
상담집단(n=10)	30.90	5.74	35.30	4.99	2.86*
비교집단(n=10)	30.10	5.32	29.30	4.37	

* p<.05

<표IV-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통제의 사후검사에서 상담집단(M=35.30)이 비교집단(M=29.30)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86, p<.05$). 즉, 또래관계 프로그램을 받은 상담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자기통제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는 교우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실시 한 후 실험집단의 자기 통제 능력 사후 검사가 사전검사에 비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장미자(200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관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이 친구들의 놀림이나 이성과의 관계, 어른과의 갈등과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된 것이라고 해석된다.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공감능력 영역의 사전, 사후 평균점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IV-5]와 같다.



[그림IV-5]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자기통제 점수의 차이 비교

이상을 종합하여 표로 제시하면 <표IV-8>과 같다.

<표IV-8>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하위영역별 점수의 차이 비교

구분 하위영역	집단별	사전		사후		t
		M	SD	M	SD	
협동성	상담집단(n=10)	28.20	3.97	34.70	3.74	3.53**
	비교집단(n=10)	27.00	5.50	27.60	5.15	
주장성	상담집단(n=10)	29.60	4.09	35.90	4.41	2.64*
	비교집단(n=10)	31.30	4.42	31.30	3.30	
공감능력	상담집단(n=10)	30.00	5.21	38.40	4.81	3.32**
	비교집단(n=10)	30.20	4.59	31.30	4.76	
자기통제	상담집단(n=10)	30.90	5.74	35.30	4.99	2.86*
	비교집단(n=10)	30.10	5.32	29.30	4.37	
사회적 기술 전체	상담집단(n=10)	118.70	17.23	144.30	14.65	3.81**
	비교집단(n=10)	118.60	16.76	119.50	14.47	

<표IV-8>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또래관계 프로그램은 사회적 기술의 향상에 효과가 있으며 그 하위영역인 협동성, 주장성, 공감능력, 자기주장의 향상에 효과가 있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또래관계 프로그램이 아동의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또래관계 프로그램은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2. 또래관계 프로그램은 사회적 기술의 하위영역인 협동성, 주장성, 공감능력, 자기통제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또래관계 프로그램을 받은 상담집단은 비교집단 간에 사회적 기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 또래관계 프로그램을 받은 상담집단은 비교집단 간에 사회적 기술의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 협동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 주장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 공감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4 : 자기통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검사,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구

성, 또래관계 프로그램의 적용, 사후검사, 통계처리 및 자료 분석의 순
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은 또래관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H초등학교
4, 5학년 20명을 선정하여 무선 표집의 방법으로 각각 10명을 상담집
단과 비교집단으로 배정하였다.

사회적 기술 검사 도구는 Gresham과 Elliott(1990)이 학생의 사회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한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Social Skills
Rating System; SSRS)를 문성원(1997)이 번안, 수정한 것으로 총 39
문항이며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또래관계 프로그램은 장현일(2003)의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과 교육인적자원부가 초등학생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만
든 ‘자기리더십 프로그램’을 토대로 본 연구 대상에 알맞게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상담 프로그램의 실시는 연구자가 매주 2회, 60-80분씩 5주간에 걸
쳐 총 10회기에 걸쳐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처리 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으며, 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담집단과 비교집
단의 사전-사후 간 점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p < .01$,
 $p < .05$ 수준에서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관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M=144.30$)은 비교집단
($M=119.50$)보다 사후 사회적 기술 검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3.81$, $p < .01$). 따라서 또래관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의 아동
의 사회적 기술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둘째, 사회적 기술의 하위 영역에 대한 사후검사의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협동성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 상담집단(M=34.70)과 비교집단(M=27.60)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53$, $p<.01$). 따라서 또래관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의 협동성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주장성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 상담집단(M=35.90)과 비교집단(M=32.30)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64$, $p<.05$). 따라서 또래관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의 주장성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공감능력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 상담집단(M=38.40)과 비교집단(M=31.30)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32$, $p<.01$). 따라서 또래관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의 공감능력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자기통제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 상담집단(M=35.30)과 비교집단(M=29.30)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86$, $p<.05$). 따라서 또래관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의 자기통제는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2. 결 론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관계 프로그램은 아동의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킨다. 즉, 자기 및 타인이해 활동, 갈등해결, 의사소통 훈련, 공감 연습, 분노조절 훈련 등이 사회적 기술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또래관계 프로그램이 아동의 또래관계를 촉진하고 사회적 적응을 돕는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또래관계 프로그램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타협하며, 자신이 할 일을 책임감 있게 마무리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협동하는 태도를 기른다.

셋째, 또래관계 프로그램은 자신이 먼저 표현하여 관계를 시작하거나 주도하며, 다른 사람에게서 정보를 구하고, 또래로부터의 압력에 적절히 반응함으로써 자기주장 능력을 키운다.

넷째, 또래관계 프로그램은 자신의 갈등 상황 시 친구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거나, 타인의 갈등 상황을 공감하고 도와주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느낌과 감정에 대해 관심과 존중을 보여줌으로써 또래간의 대인 관계 능력을 향상시킨다.

다섯째, 또래관계 프로그램은 친구들의 놀림이나 이성과의 관계, 어른과의 갈등과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분노를 이성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절제력을 키운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하면 또래관계 프로그램은 아동의 사회적 기술의 향상에 효과가 있으며, 그 하위영역인 협동성, 주장성, 공감능력, 자기통제의 향상에 효과가 있다. 즉, 또래관계 프로그램은 아동이 또래 접촉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여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

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사회적 기술이 결핍된 아동의 사회적 행동 및 또래 관계의 개선을 위해 또래관계 프로그램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제언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관계 프로그램은 아동의 사회적 기술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므로 학교 현장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기술 검사에 있어서 본 연구의 결과는 질문지법을 통해 얻어진 자료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래관계 프로그램이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친구들 서로 간에 상대방을 평가하는 방법과 교사 평가 척도를 병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또래관계 프로그램의 지속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실험처치 직후에 나타난 결과가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밝히지 못하였다. 또 가정에서 연계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도 밝히지 못했으므로 지속적인 성격적 특성으로 남아있도록 내면화하기 위한 장기간의 분산 진행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비교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진령, 유형근(2000). 집단 괴롭힘. 서울: 학지사.
- 교육인적자원부(2004). 자기리더십 프로그램. 서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구본용(1997). 집단 따돌림 피해 중학생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혜(1999). 분노조절 훈련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공격성 감소에 주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김혁곤(1992). 대학생의 사회적 불안 감소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김희순(2000). 심성계발훈련이 폭력학생의 자아개념 및 공격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 문성원(1997). 한국판 청소년용 사회 기술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 미간행논문
- 문영희(1998). 학령기 아동을 위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기범(2005). REBT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집단 괴롭힘 피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불안, 우울 및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연정(2002).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또래괴롭힘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박진재(2001). 아동의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사회적 기술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2001). 친구사귀기 캠프프로그램Ⅱ.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서영미(2004). 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성, 또래관계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성태훈(2003). 애착 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및 또래지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손진희, 홍지영, 양재혁(1998).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서울 : 서울특별시청소년종합상담실
- 송명자.(1995). 정직성의 본질과 정직성 교육에 관한 고찰. 한국청소년연구, 21. 33-46. 서울 : 한국청소년 개발원.
- _____ (1997). 인간발달 연구. 서울: 학지사.
- 연문희, 강진령(2002). 학교상담: 21세기의 학생생활지도. 서울: 양서원.
- 오미자(2004). 사회적 기술훈련 프로그램이 사회적 고립아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감 및 사회기술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순화(2003). 또래관계 개선 집단상담이 따돌림 피해 아동의 사회적 고립 극복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병숙(2003).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 적용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성경(1988). 또래 체재로서의 관점. 청소년 이해론, 23-38. 서울 : 한국청소년 상담상담원
- 유숙희(2003). 청소년의 또래집단 수용 유형과 사회기술 및 공격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기현(2000). 주장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초등학생의 공격성 행동 감소 방안. 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 이명선(2004).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집단따돌림 피해 중학생의 사회적 기술, 교우관계, 학교적응,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사라(2001). 부모와 또래가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 관한 중단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상희, 노성덕, 이지은(2000). 단계별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 한국정소년상담원.
- _____ (2001). 초등학생용 또래상담 프로그램: 청소년 상담 연구. 서
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숙, 최정미(2000). 어머니의 애착과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
감에 미치는 영향. pp64-72, 한국가정과학회.
- 이은정(2000). 가족의 기능적 특성과 교우관계가 아동의 역량지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은혜(1999). 아동의 친구관계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 3, 77-95.
한국아동학회.
- 고윤주(1999). 학령기 아동을 위한 친구관계 측정 도구 개발에 관한 연
구. 아동학회지, 22. 2, 225-242. 한국아동학회.
- 이창호(2003). 사회적 기술훈련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청소년의 부
적응 행동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교
육대학원.
- 이춘자(2000). 사회적 기술 훈련이 아동의 교우관계, 학급활동 및 사
회적 추론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
교 대학원.
- 이현숙(2003).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수줍음 아동의 사회적
기술,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장미자(2004). 교우관계 개선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소외감과 사회적 기
술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현일(2003).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아동의 관계적 공격행동 감
소와 친구관계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
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정대영, 이석진, 정해동, 권오희, 권재남(1994). **사회적 기술훈련 프로그램**. 국립특수교육원
- 정영이(2004). **집단 괴롭힘 피해 초등학생을 위한 집단상담이 자아존중감, 불안, 우울 및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한영주(1999). **중·고등학교 집단 따돌림(왕따)가해자 및 피해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홍경자(1990). **사회적 기술 훈련의 프로그램**. 신부 김영환 총장 회갑기념논총, 대구 : 효성카톨릭대학교 출판부.
- Asher, S. R., & Wheeler, V. A. (1986). Children's loneliness: A comparison of rejected and neglected peer statu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500-505.
- Asher, S. R., & Coie, J. D. (1990). *Peer rejection in childre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hrmester, D., & Furman, W.(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qualities of sibling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56*, 448-461.
- Bukowsky, W. M., & Hoza, B. (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In T. J. Berndt & G. W. Ladd (Eds), *Peer relationship in child development*(pp. 15-45). NY: Wiley.
- Coie, J. D., & Kupersmidt, J. B. (1983). A behavioral analysis of emerging social status in boy's groups. *Child Development, 54*, 1400-1416
- Erickson, E. H. (1959). Identity and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s*.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Foster, S. L. & Ritchey, W. I. (1979). Issues in the assessment of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12, 625-638
- Frentz, C., Gresham, F., & Elliott, S. N. (1991). Popular, controversial, neglected, and rejected adolescents: Contrasts of social competence and achievement difference.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9, 109-120.
- Frosch, S.(1983). Children and teachers in schools. In S. Spence, & G. Shepherd(Eds.), *Developments in social skills training*. London : Academic Press.
- Gresham, F. M. (1988). Social skill. In J. C. Witt, S. N. Elliott, & F. M. Gresham (Eds.), *Handbook of behavior therapy in education* (pp. 74-92). New York: Plenum Press
- Gresham, F. M., & Elliott, S. N. (1990). Social skills rating system. *Circle 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
- Hansen, D. J., Watsorm-Przel, M., & Christopher, J. S.(1989). *Clinical Psychology review*, 9, 365-391.
-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 in Hether Ington(Ed).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 Hartup, W. W. & Laursen, B.(1989). *Contextual constraints and children's friendship relation(ERIC Document Reproduction No. ED 310 848)*.
- Hartup, W. W. (1996).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Child development*, 67, 1-13.
- Harvighurst. R. J. (1973). A cross-cultural view of adolescence. in

- S. f. Adams(Ed.) *Under studying adolescence: Current developments in adolescent psychology(2nd ed)*. Boston: Allyn & Bacon
- Heaven, P. C. L.(1994). *Contemporary adolescence: A Social-Psychological Approach*. Macmillan Education Australia Pty Ltd.
- Kelly, J. A.(1982). *Social skills training: A practical guide for intervention*. New York: Spring Publishing Company.
- Mcfall, R.,M. (1982). A review of reformation the concept of social skills. *Behavior Assessment*, 4, 1-33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hip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 Parker, J. G. & Asher, S. R.(1989). Peer relations and social adjustment: Are friendship and group acceptance distinct domains? In W. M. Bukowski(chair), Properties, process and effects of friendship relation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Sysposium conducted at the biannual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Kansas City*, No.
- Parker, J. G, & Asher, S. R.(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the middle childhood :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 Psychology*, 29, 611-621
- Perry, D. G. & Bussey, K.(1984). *Social development*. NJ :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 Phillios, E. L. (1985). Social skills; history and perspect. In L. La `

Abate, & M. A. Milan (Eds.), *handbook of social skills training and research* (pp.29-47). New York; Wiley and sons.

Rogers, C.R. (1970). *Carl Rogers on encounter group*. New York: Houghton Mifflin.

Youniss, J. (1980). *Parents and peers in social development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bstract>

**The Effects of Peer Relationship Program
on Social Skills of Children**

Kim, Yangson

Counsel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Tae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erform a peer relationship program on children and identify its effects on their social skills. To this end, the following questions were raised?

1. What effects does a peer relationship program have on children's social skills?
2. What effects does a peer relationship program have on the ability to cooperate, make arguments, agree and self-regulate, which is a sub-area of social skills?

To answer these questions, 20 4th and 5th graders from H elementary school in South Jeju County were selected, who wanted to take part in the experiment.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counseling group and control group with 10 students in each group.

* This thesis is a education masters degree thesis submitted to Cheju National University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n Aug, 2006.

The peer program used in this study modeled upon Chang Hyun-il's "A Program to Advance Peer Relationship" (2003) and "Self Leadership Program" developed by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as a personality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but with modifications to the purpose of this study. Consultation took place twice a week over 5 weeks, making the total times of consultation 10. Sixty to eighty minutes were spent per each time of consultation.

This study used Moon Sung-won's version of Social Skills Rating System, which was developed by Gresham and Elliott to assess students' social skills, especially and only the frequency part made up of 39 questions for students. For analysis and processing of data, SPSS for Windows 12.0k was used. T-test was conducted at $p < .01$ and $p < .05$.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a peer relationship program improves children's social skills.
- Second, a peer relationship program develops the attitude to compromise, instead of conflict, and cooperate with others.
- Third, a peer relationship program enhances the ability to take an initiative in starting relationships and put forth his own argument.
- Fourth, a peer relationship program improves the ability to form relationships with others by helping understanding their feelings and supporting them.
- Fifth, a peer relationship program is useful to control their own feelings as they learn to regulate emotions or anger.

Based on the above conclusion, a peer relationship program is effective in improving children's social skills as well as enhancing their sub-areas including the ability to cooperate, make arguments, agree and self-regulate. In other words, a peer relationship program can

help children learn social skills necessary for positive interaction and form a good peer relationship. This suggests that peer relationship programs can be used in schools to improve social behaviors and peer relationships of the students who lack social skills.



부 록

<부록1> 사회적 기술 검사	53
<부록2> 또래관계 프로그램	57
<부록3> 또래관계 프로그램 활동자료	67
<부록4> 소감문	84

<부록1>

사회적 기술 검사

안녕하세요?

이 질문지는 어린이 여러분이 더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평소 여러분의 생활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입니다.

이 질문지에는 정답이 있는 문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각 문항에 대해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하면 됩니다.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의 느낌이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답을 하나만 골라 V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의 자기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2005년 00월 00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김양선

이름		()학년	()반	성별	남, 여
----	--	-------	------	----	------

◆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행동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이 있습니다. 각 문항들을 자세히 읽어보고,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 해 주세요

번호	질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 그런편이다
1	친구를 쉽게 잘 사귀다.	①	②	③	④	⑤
2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잘했을 경우, 그 사람에게 “훌륭해”, “멋있어” 등으로 칭찬을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아이들이 나를 심하게 때리거나 지나치게 괴롭히려 할 경우 고민하지 않고 어른에게 도움을 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반 남자(여학생의 경우), 여자(남학생의 경우)친구들과의 만남에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친구가 화가 나있거나, 혼란 상태에 있거나, 혹은 슬피하고 있을 경우 그 친구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어른이 말씀하시면 귀담아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다른 아이들이 나를 놀려대거나 욕을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무시해 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에게 골칫거리가 있을 경우 그것에 관해 친구의 도움을 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하게 될 때는 미리 물어보고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의견이 어른들의 생각과 다른 경우, 싸우거나 논쟁을 벌이지 않으면서도 이를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중에 어른에게 꾸지람을 듣게 될 만한 일에는 같이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질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런 편이다
12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경우,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3	숙제를 제시간에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책상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유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부모님께서 먼저 시키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집안의 잡일을 돕는 등의 일을 잘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운동이나 특별 활동과 같은 학교 내의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수업시간 내에 해야 하는 과제나 기타 활동을 정해진 시간에 마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의 의견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의견과 같지 않을 경우 대화를 통해서 타협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수업 중에 장난을 치는 아이들과 같이 까불거나 하지 않고 그냥 모르는 척 해 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20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반 친구에게 내가 먼저 같이 놀자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친구들이 자신의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잘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22	부모님과 의견이 다를 때 소란을 피우지 않고 조용하게 마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을 할 줄 안다.	①	②	③	④	⑤
24	다른 사람이 뭔가를 잘 했을 경우 그 사람에게 말로 표현을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5	다른 사람과 마주쳤을 때는 미소를 짓거나 손을 흔들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 인사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질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 그런편이다
26	남학생(여학생의 경우), 여학생(남학생의 경우)과 이야기를 시작할 때 불안해하거나 안절부절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7	어른이 나를 벌할 때 화내지 않고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28	내가 어떤 친구를 좋아하고 있으면, 그 사실을 말이나 감정 표현을 통해서 그 친구가 알게끔 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친구가 부당한 비난을 받고 있을 경우 그 친구의 편이 되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30	사람들과 어울려서 운동이나 게임, 서클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하자고 권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여가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사람들이 나에게 화를 내더라도, 나는 내 감정을 잘 조절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부모님의 비난을 화내지 않고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34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35	교실에서 벌이는 토론에서는 지나치게 과격하거나 무례하지 않은, 차분하고 교양 있는 말투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36	부탁을 들어달라고 친구에게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37	내가 먼저 말을 꺼내서 반 친구들과 대화를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⑤
38	문젯거리나 말다툼이 발생할 경우 그 일에 관해 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39	남학생(여학생의 경우), 여학생(남학생이 경우)나를 주의 깊게 쳐다보아도 나는 내 감정을 잘 조절한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2> 또래관계 프로그램

【제 1 회기】 나와의 약속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원들이 함께 활동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친밀감, 신뢰감을 갖게 하며 본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하고 동기를 북돋운다.
준비물	활동지, 서약서, 필기도구
활동 과정	활 동 내 용
마음 열기	<p><친구를 사랑하십니까?(게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로 둥그렇게 둘러앉아 게임을 하면서 친밀감을 갖도록 한다.
중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1 : 나를 소개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지1-1>에 자신의 이름을 삼행시로 만들어 적어 보도록 한다. 활동지에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감추고 싶은 것,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배우고 싶은 점을 적도록 한다. 활동지를 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발표한다. ● 활동 2 : 나와의 약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도자가 프로그램의 의미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친구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좋은 친구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생각하고 발표해본다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을 정해서 읽어본다.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호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두 쪽지에 자신의 이름을 써서 접고 한 장씩 뽑는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혼자서 확인하고 모두 자신이 뽑은 쪽지에 적힌 사람의 수호천사가 된다. 마지막 회기 때까지 상대방 모르게 그 친구를 위해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한다. 새롭게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에 대해서 서로 마음을 나눈다

【제 2 회기】 너를 보여줘!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자신에 대한 솔직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친구의 의미를 인식하고 친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다
준비물	색 도화지, 매직, 활동지, 필기도구
활동 과정	활 동 내 용
마음 열기	<p>< 뒤로 넘어지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사람씩 짝을 이루어 한 방향으로 선 자세로 한 사람이 무릎과 허리를 굽히지 않은 상태에서 꼳꼳하게 뒤로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짝을 편안하게 받아준다.
중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1 : 누구일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지2-1>에 자신의 특징(성격, 외모 등)을 쪽지에 3가지씩 적는다. • 쪽지를 모두 섞은 후, 자유롭게 하나씩 갖도록 한다. • 동그랗게 앉아서 쪽지에 적힌 내용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서로 맞추어 간다. 느낌을 이야기해 본다. ● 활동 2 : 내가 좋아하는 친구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지2-2>에서 자신이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를 떠올리면서 그 친구와 어떻게 해서 친해졌는지, 그 친구의 어떤 점이 좋은지 등을 적어 본다. 이때 ‘그 친구가 착해서~’보다는 그 친구가 무거운 가방을 같이 들어줘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쓰도록 한다. • 기록이 끝나면 구성원들이 각자 적은 것을 발표하고, 지도자는 특히 어떻게 해서 친해졌는지, 그 친구의 어떤 점이 좋은지 부분을 들으면서 정리한다. • 친구와 친하게 된 과정과 좋아하는 특성을 열거해 보면서 좋은 친구의 의미를 찾아본다. • 활동지의 <생각해 봅시다>의 항목에 따라 구성원들이 생각을 발표하고 친구의 의미를 연결하고, 친구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롭게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에 대해서 서로 마음을 나눈다

【제 3 회기】 나랑 친구랑 다르군요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다
준비물	활동지, 풍선, 매직, 가위, 풀, 필기도구
활동 과정	활 동 내 용
마음 열기	<p><진실과 거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지3-1>에 자신에 대한 진실과 거짓말을 3가지씩 적고 한사람씩 돌아가면서 종이에 적은 내용을 읽는다. • 구성원들은 어떤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인지 맞춘다.
중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1: 얼음 땡! • 구성원 모두 두 사람씩 짝을 짓는다. • 두 사람은 배우가 된다. • 지도자는 두 배우에게 상황을 주고 그 상황을 표현하도록 한다. 그 때, 지도자가 어느 순간에 얼음! 하고 외치면 배우는 행동을 멈추고 움직이지 않는다. • 지도자가 그 상황에서 표정, 몸짓, 태도, 말투가 어땠는지를 구성원에게 물어본다. ● 활동 2 : 친구 사이에 이런 일이? • <활동지3-2>에 친구 사이에 속상했거나 서운한 일, 다툰 경험을 적어본다. • 활동지를 항목별로 잘라서 각 항목별로 모은다. • 각 항목에서 하나씩 골라 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로 만든다. • 발표한 이야기에 대해서 서로의 느낌을 나눈다.
마무리	<p><풍선 터뜨리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들에게 풍선을 한개 씩 나누어 준다. • 풍선에 자신의 친구관계의 문제 또는 바꾸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적은 후, 각자 적당한 크기로 불게 한다. 터뜨린 다음에 느낌을 말하도록 한다. <p><과제> 친구와 서먹서먹해졌을 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 중에 서먹서먹하고 불편한 친구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친구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생각해오기

【제 4 회기】 서로 존중하기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 개인의 차이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
준비물	활동지, 필기도구, 공,
활동 과정	활 동 내 용
마음 열기	<p>< 달라진 점 찾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씩 짝을 짓고 서로 30초가량 쳐다보며 상대방을 잘 관찰한 다음 30초 정도의 시간을 주고 서로 뒤돌아서서 세 가지 정도의 변화를 준다.(예 ; 머리핀을 빼다. 단추를 잠근다 등.) ● 세 가지를 먼저 찾는 사람이 이긴다.
중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1 : 구별 게임 ● 구성원들에게 사실과 의견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한다. ● <활동지4-1>의 진술문을 읽어주고 그 진술문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판단하도록 한다. ● 활동 2 : 너와 너 다시 보기 ● 구성원이 동그랗게 둘러앉는다. ● <활동지4-2>의 ‘나와 너 다시보기’에 자신의 고민되는 약점, 단점을 한 가지 적는다. ● 다 적었으면 옆 사람에게 전달한다. 전달받은 사람은 그 친구의 약점을 긍정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를 적어준다. ● 계속 옆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서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적을 수 있게 한다.
마무리	<p><자화자찬 통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을 가진 사람이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장점을 한 가지 말한다. 말한 뒤, 다른 사람을 향해 공을 가볍게 전달한다. ● 공을 받은 사람은 역시 이름과 장점을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을 던진다. 구성원 모두가 3가지 장점을 말할 때까지 계속한다. ● 새롭게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제 5 회기】 대화하는 친구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관계에서 대화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친구관계에서 대화할 때의 어려움을 경험하도록 한다.
준비물	의사소통 활동지, 필기도구, 백지
활동 과정	활 동 내 용
마음 열기	<p><시장에 가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 등글게 둘러앉고, 한 사람이 먼저 ‘시장에 가면 (A)도 있고’ 하면 다른 사람이 받아서 ‘시장에 가면(A)도 있고, (B)도 있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계속 이어간다.
중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1 : 귓속말 이어받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이 동그랗게 둘러앉는다. ● 지도자는 첫 구성원에게 이야기의 시작이 쓰여진 메모를 준다. 예) 옛날 옛날에 돼지 임금이 살았는데~ ● 첫 구성원은 그 이야기의 뒤를 이어받아 옆 구성원에게 귓속말로 전달한다. 이 때 자신이 이야기의 뒷부분을 한 문장 더 연결시킨다. 예)옛날 옛날에 돼지 임금이 살았는데, 어느 날 산 속에서 호랑이를 만났데 그런데...) ● 계속 옆 구성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서 마지막 구성원에게까지 전달되면, 마지막 구성원이 완성된 이야기를 말하게 한다. ● 활동 2 : 의사소통 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명씩 짝을 짓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정한다. 먼저 2분 동안 시간을 주고 말하는 사람은 열심히 이야기하고, 듣는 사람은 최대한 듣지 않도록 한다. 지도자는 2분이 경과하면 그만 멈추게 하고, <활동지5-1>작성한 후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어떤가요?’ 하면서 이야기 한 사람의 소감을 듣는다. ● 이번에는 2분 동안 먼저 말했던 사람이 역시 열심히 이야기하고, 들었던 사람이 이번에는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 듣도록 한다. 2분이 경과하면 ‘반대로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 어떤가요?’하면서 이야기한 사람의 소감을 듣는다.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 안 들어 주기와 잘 들어주기를 할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

【제 6 회기】 네 마음 내 마음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관계에서 의사소통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알고 대화의 기본자세를 익히도록 한다. ● 친구관계에서 공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말과 행동을 익히도록 한다.
준비물	감정 단어카드, 활동지, 필기도구, 다양한 상황 예, 백지
활동 과정	활 동 내 용
마음 열기	<p><감정세계로의 여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을 두 팀으로 나눈다. ● 한 사람이 낱말카드 중 한 개를 고른다. ● 낱말 카드에 적힌 감정을 말은 하지 않고, 얼굴표정이나 제스처 등으로 묘사한다.(예: 기쁘다, 입을 크게 벌리고 손을 높이 든다.) ● 이것을 보고 구성원들이 어떠한 감정을 나타내는지를 알아 맞춘다. 시간제한 내에 많이 맞춘 팀이 승리한다.
중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1 : 이럴 땐 어떤 마음? ● 지도자가 <활동지 6-1>의 다양한 상황을 한 문장씩 읽어 주면, 참가자는 그 문장의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기분이 드는지 적어본다. ● 길게 적지 말도록 하고, 간단하게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떠오르는 느낌을 적도록 시간을 짧게(5초가량) 준다. ● 각 문항에 대해 참가자들이 다 적었으면, 지도자가 다시 한 문장씩 읽고, 각자 어떻게 적었는지 발표한다. ● 활동 2 : 입장 바꿔 생각해 ! ● 앞에 상황과 동일한 상황을 제시하여 주고, 내가 아닌 다른 친구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친구의 기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적어본다. ● 진행은 앞의 활동과 동일한데, 일부 항목에서는 그 상황에 처한 친구에게 어떻게 말해 줄 수 있는지를 적어 본다.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롭게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제 7 회기】 더 가까워지고 싶어 !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공감 받고 싶은 심정을 솔직하게 드러내 볼 수 있다. ● 서로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준비물	신나는 음악, 활동지, 필기도구
활동 과정	활 동 내 용
마음 열기	<p><벽 뚫기 게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위 바위 보로 구성원 중 한사람을 술래로 정한다. ● 술래가 아닌 구성원은 동그랗게 둘러선 다음 모두 어깨동무를 해서 술래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원형의 벽을 만든다. 술래는 밖에서 틈을 엿보면서 구성원 사이를 벌리고 벽을 뚫고 들어가려고 애쓴다. 나중에 느낌을 서로 이야기해 본다.
중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1 : 공감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지 7-1>의 제시되어 있는 기분을 느꼈던 때를 떠올린 후 그 때 가족, 친구에게 듣고 싶었던 말을 적게 한다. ● 위의 경험을 활용하여 공감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 공감 표현에 있어서 경청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 활동 2: 나 전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를 다 함께 읽는다. ● 준수의 기분이 어땠는지 함께 이야기해 본다. ● <활동지7-2>의 나 전달법과 너 전달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 나 전달법 연습하기 <활동지7-3>을 나눠주고 함께 해 본다. ● 지도자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마무리	<p><과제>: 가족에게 공감해 주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구성원 중 한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기를 실천한다. ● 공감을 표현할 때에는 경청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제 8 회기】 함께 생각해 보아요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가 정당한지 생각해본다. ●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
준비물	활동지, 필기도구
활동 과정	활 동 내 용
마음 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 따돌림을 당한 어느 소년의 이야기 듣기’를 듣고 이 친구가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 친구를 집단 따돌림 시키는 학생들은 어떤 친구들인지 생각해본다.
중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1 : 집단 따돌림 현상에 대해 토론하기 ● <활동지8-1>에 제시된 질문을 바탕으로 집단 따돌림에 대해 자기의 생각을 적는다. ● 활동지에 제시되어 있는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한다. ◎ 활동 2 : ‘왕따, 그 이유’ 게임으로 생각해 보기 ● 질문이 들어있는 다트판을 준비한다<활동지 8-2> ● 공동 가위바위보 놀이를 활용하여 리더를 선정한다. ● 리더로 선정되면 게임 시작을 알린다. ● 리더는 다트판을 돌리고 멈췄을 때의 질문에 대하여 답한다. 단순히 답하기보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한다. ● 질문에 답하고 난 후 다음 발표자를 지명하고 반복한다. ● 집단 따돌림을 없애기 위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서로 이야기 한다.
마무리	<p><이 아이는 15년 후> 애니메이션 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에디슨도 어릴 때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는 내용 ● 구성 <p>장면1 : 한 아이가 3명의 아이들의 놀림을 받고 있다. 장면2: 놀림을 받던 아이 혼자 시무룩하게 앉아 있다. 장면3: <이 아이는 15년 후에...>라는 문구가 뜬다 장면4: 친구, 축음기 등과 함께 연구하는 학자의 모습이 제시되면서,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이 되었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온다. 장면5: <여러분이 따돌리는 친구들 중에도 에디슨이 있는지 모릅니다.>라는 문구가 소리와 함께 화면에 제시된다.</p>

【제 9 회기】 친구와 다투지 않아요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관계에서 생겨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찾아본다. ● 또래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을 익혀본다.
준비물	활동지, 필기도구, 부정적 감정표
활동 과정	활 동 내 용
마음 열기	<p><노래부르기-그대로 멈춰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그대로 멈춰라.’ 노래를 즐겁게 부르면서 멈추는 동작을 다양하게 한다.
중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1 : 부정적 감정 다루기 ● 최근에 친구에게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을 생각해 보고 그때 그 감정을 어떻게 나타냈는지 이야기 해 본다. ●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방법을 다루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적인 감정 밑에 숨어 있는 나의 생각> - 화 : 더 이상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인가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 - 짜증 : 내가 너로 인하여 너무 힘들다. 너가 나를 좀 생각해 주어야 할 것이다. - 귀찮은 : 친구도 뭐도 다 귀찮다. 내 기분도 좀 알아줘야지. - 열등감 :나도 너처럼 잘 되고 싶다. - 시기 : 나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싶다. ● 친구관계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중립적이거나 건설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지 이야기 해 본다. ◎ 활동 2 : 잠깐! 하나, 둘, 셋! ● 친구와 지내다 자신도 모르게 좋지 않은 감정(화, 질투, 서운함, 경쟁심 등)이 일어날 때 너무 화가 나서 말을 안 하거나, 폭발을 해 버려 친구사이가 더 서먹해 질 수도 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잠깐! 하나, 둘, 셋! 전략을 배워본다.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가 나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해 준 경험을 이야기 해본다. ●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 내가 가장 싫어했던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어떻게 해 줄 수 있을까? 를 이야기 한다.

【제 10 회기】 도움을 주는 친구로..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관계 훈련(좋은 친구 되기) 과정을 통해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또래 관계에서의 중요한 점과 실천해야 할 점을 인식한다. ● 도움친구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훈련과정 평가를 통해 진행과 내용을 정리한다.
준비물	활동지, 소감문 용지, 필기도구
활동 과정	활 동 내 용
마음 열기	<p><수호천사 확인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자는 1회기에서 실시했던 수호천사 활동들을 상기시킨다. ● ‘하나, 둘, 셋!’ 이라는 지도자의 구령에 따라 마음속으로 짐작했던 수호천사를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 자신이 생각한 수호천사가 실제 수호천사와 일치했던 경우와 자신이 생각한 수호천사가 달랐던 경우에 대해서 느낌과 생각을 나눈다.
중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1 : 프로그램 돌아보기 ● 또래 관계 프로그램의 마지막 시간임을 일깨우고, 이제까지의 활동들 중에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는지 떠올려 본다. 또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임을 염두에 두면서 그 동안의 기억을 되새겨 본다. ● 지도자는 구성원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지금까지의 프로그램을 요약하게 한다. ● 활동 2 : 소감문 작성하기 ● 지도자는 구성원에게 소감문 용지를 나누어준다.<소감문 10-1> ●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낀 점과 앞으로 자신이 실천해야 할 점들을 쓸 수 있도록 한다. ● 친구관계에 대해 달라진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도록 유도한다.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점들을 자유로이 발표해 본다.

<부록 3 > 또래관계 프로그램 활동 자료

(활동지 1-1)

♥♥♥ 나를 소개합니다 ♥♥♥

()

▶ 자기 소개를 해 볼까요?

▶ 자기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 보세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그리고, 다음을 완성해서 발표해 봅시다

☞ 내가 잘하는 것:

☞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 내가 감추고 싶은 것:

☞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배우고 싶은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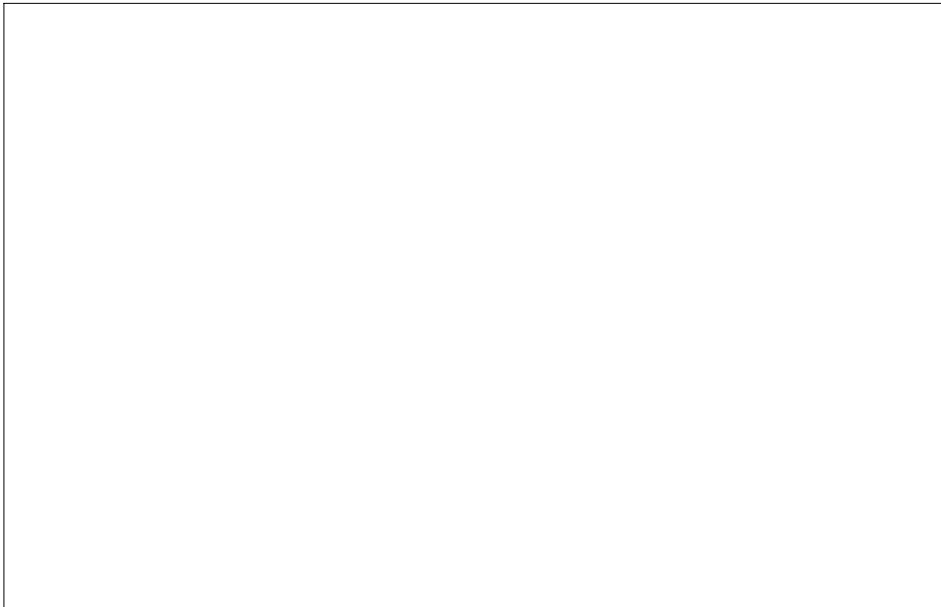
(활동지 2-1)

♥♥♥ 누구일까요? ♥♥♥

()

▶ 나의 특징을 적어봅시다.

▶ 외모나, 성격 등 쉽게 알 수 있는 것과 함께 다른 사람이나에 대해 쉽게 알지 못하는 점을 함께 써 봅시다.



(활동지 2-2)



생각해봅시다



()

▶ 내가 좋아하는 친구는?

1. 좋아하는 친구를 떠올려보세요(친구의 이름은 기호나 별명으로)

2. 그 친구와 어떻게 해서 친해졌나요?

3. 그 친구의 어떤 점이 좋나요?

★ 좋은 친구란?

(활동지3-1)

♥♥♥ 진실과 거짓 ♥♥♥

()

▶ 자신에 대한 진실과 거짓말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 진실

1.

2.

3.



▶ 거짓

1.

2.

3.


(활동지 3-2)

♥♥♥ 친구사이에 이런 일이? ♥♥♥

()

▶ 친구 사이에 속상했거나 서운 한 일, 다툼 경험을 적어 보세요

◆ 속상했던 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서운했던 일

◆ 다툼 경험

(활동지 4-1)

♥♥♥ 구별해보자 ♥♥♥

()

- ▶ 사실 : 누구나 옳다고 받아들이는 객관적인 사실을 의미한다.
- ▶ 의견 :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견해를 의미하며 옳고 그른지를 객관적인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진술문 예) : 1.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다. ()

2. 머리가 긴 여자가 미인이다.()

3. 덩치가 크면 싸움을 잘 한다.()

4. 공부 잘 하는 아이는 잘 난 척을 잘 한다.()

5. 엄마는 여자다()

6. 선생님은 여자다()

7. 아이들과 잘 어울리려면 키펀드가 있어야 한다.
()

8. 천지연은 서귀포에 있다()

★알게된 점 :

(활동지 4-2)

♥♥♥ 나와 너 다시 보기 ♥♥♥

()

- ▶ 자신이 고민되는 약점이나 단점을 한 가지 적어 보세요
- ▶ 다 적었으면 옆 사람에게 전달하세요
- ▶ 전달받은 사람은 그 친구의 약점을 긍정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를 적어 주세요

내가 바라보는 나의 약점이나 단점	친구가 바라보는 긍정적인 점

(활동지 5-1)

♥♥♥ 잘 들어주기, 안 들어주기 ♥♥♥

()

▶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어떨까요?

▶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 어떨까요?



▶ 알게된 점

(활동지 6-1)

♥♥♥ 이럴 땐 어떤 마음? ♥♥♥

()

▶ 지도자가 들려주는 상황을 잘 들어보세요

▶ 그 상황에 처한 친구에게 어떻게 말해 줄 수 있을지 적어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활동지 6-2)]

지도자가 들려 줄 상황

()

<상황 예>

1.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학교에 갔다.
2. 아빠가 전근을 가시게 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게 된다.
3. 수학에서 낙제 점수를 받았다.
4. OO이가 나를 밀고 지나갔다.
5. 수업시간에 짝과 장난을 치다가 야단을 맞았다.
6. 실수로 교실의 어항을 깬다.
7. 이번 시험에서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았다.
8. 내가 실수하는 바람에 우리 반이 축구에서 졌다.
9. 오늘은 내 생일이다.
10. 장난삼아 친구를 툭 쳤는데, 그 친구가 넘어졌다.
11.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다른 애랑 더 친하다.

(활동지 7-1)

♥♥♥ 공감 이해하기 ♥♥♥

()

- ▶ 아래와 같은 기분을 느꼈을 때를 떠올린 후 그 때 가족, 친구에게 듣고 싶었던 말을 적어보세요

	나의 경험	듣고 싶었던 말
슬펐을 때		
걱정될 때		
기뻐했을 때		
화났을 때		

(활동지 7-2)

♥♥♥ 나-전달법과 너-전달법 ♥♥♥

()

- ▶ 너-전달법 : 어떤 사건의 원인을 상대방한테 떠 넘기고 비난이나 질책하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예) ‘넌 왜 그 모양이니?’, ‘너, 그거 밖에 못해’, ‘너 진짜 짜증난다’
- ▶ 나-전달법 : 어떤 사건이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느낌을 전달할 때 ‘나’를 주어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효과적인 대화법입니다.
예) ‘난 네가 떠들어서 방해가 된다.’
‘난 네가 그렇게 하는 게 걱정이 돼!’
- ▶ 나-전달법은 특별한 행동,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 나의 느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 ① 문제가 되는 특별한 행동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한다.
예) 넌 나랑 약속한 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야?(×)
예) 나는 네가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어서, (O)
 - ②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말한다.
예) 너 같은 애랑 약속이나 할 수 있겠어? (×)
예) 네가 늦게 와서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약속이 늦어져서 숙제할 시간도 줄어 들었어 (O)
 - ③ 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솔직하게 말한다.
예) 네가 1시간이나 늦게 안 오니까 걱정도 되고 화도 났어 (O)
- ▶ “네가 ~해서, 내가 ~하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한 다음 거기에 따른 내 기분을 솔직하고 부드럽게 표현한다.

(활동지 7-3)

♥♥♥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

()

상황 1.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심한 꾸중을 들어서 좋지 않은 데 이것을 모르는 친구가 옆에서 자꾸 장난을 건다.

1. 평소의 나라면 이 경우에 친구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너-전달법)
2. 위와 같이 말했을 때 친구의 기분은 어떠할까요?
3.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나-전달법을 사용하여 표현하여 봅시다.

상황 2. 오늘은 나와 짝꿍이 교실 청소 당번이다. 그런데 짝꿍은 청소를 전혀 하지 않고 계속 놀고만 있다.

1. 평소의 나라면 이 경우에 친구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너-전달법)
2. 위와 같이 말했을 때 친구의 기분은 어떠할까요?
3.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나-전달법을 사용하여 표현하여 봅시다.

(활동지 8-1)

♥♥♥ 왕따, 그 이유는... ♥♥♥

()

생각해 볼 문제	우리의 생각
• 어떤 행동을 할 때, 집단 따돌림을 당한다고 생각하나요?	
• 어떤 행동을 할 때, 집단 따돌림을 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직접 집단 따돌림을 시키지 않으면 집단 따돌림을 당한 친구에게 무관심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집단 따돌림을 당한 친구를 괴롭히거나 적극적으로 집단 따돌림을 시키는 친구들은 어떤 특성을 가진 친구들인가요?	

(활동지 8-2)

♥♥♥ 다트판을 돌려라 ♥♥♥

()

- ▶ 다트판은 총 10 조각으로 구성된다. 이중 7조각은 질문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3조각은 ‘뿡’. ‘다음기회에…’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 다트판에 들어갈 질문 ♣

- ♣ 왕따를 당하는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요?
- ♣ 왕따를 시킬 때, 왕따를 시키는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요?
- ♣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 ♣ 왕따를 시키는 친구가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 ♣ 왕따가 된 친구의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 ♣ 왕따를 시키는 친구의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 ♣ 왕따가 되는 특징들을 모두 고치면 학교에서 왕따가 생기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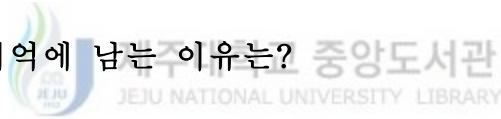
(소감문)

♥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나의 느낌과 생각은... ♥

()

1. 집단상담 활동 중 가장 인상 깊거나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 그것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2. 또래관계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점은 무엇인가요?

3. 프로그램 활동 중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4. 집단상담 전과 지금, 달라진 점(생각, 마음, 행동)은 무엇인가요?

5. 집단원(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6. 집단지도자(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7. 그 외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로이 써 보세요

또래관계 프로그램 참가 소감문

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이다. 처음에는 기대가 별로 크지 않았다. 하지만 하면 할수록 기대는 커졌다. 하는 도중에 하기 싫어지기도 하였다. 방학 동안에 빨리 일어나서 학교에 가기가 싫어서이다.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나오길 잘한 것 같다. 지금은 기분이 너무 좋고 앞으로 친구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은 왕따 체험인데 그 친구의 속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친구가 왜 왕따가 되었는지도 알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달라진 것은 아이바에게 무관심했었는데 지금은 전보다 관심이 많아졌다. 친구들과 활동하면서 아주 재미있었고 친구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친구와 좋게 말하는 방법을 배웠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웠다. 평소에 쓰던 말을 바꿔 쓰기가 잘 안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여러 친구와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김현중)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배운 점은 친구와 쉽게 친해지는 법을 알았다. 예전에는 친구에게 아무렇게나 말해서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좋게 말 할 수 있고 친구와도 친하게 지낼 수 있다. 가장 인상에 남았던 점은 왕따 체험인데, 왕따 당하는 친구가 그렇게 외롭게 지내는지 몰랐다. 그 친구도 우리와 다른 점이 없었다. 친구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제일 어려웠다. 앞으로는 모두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선생님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김치)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는 말도 하지 않던 아이바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니 말도 잘하고 잘 노는 것을 보니 ‘참 잘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친구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고 친구에게 좋게 말을 전달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왕따를 당할 때의 심정을 말하는 활동이었다. 아이바가 그렇게 외로운 줄

몰랐다. 예전에는 우리가 아이바에게 말도 안 걸고 아는 척도 안했지만 이제는 말고 걸고 아는 척도 하고 괴롭히지 않으니 아이바는 말도 하고 뛰어다니며 놀기도 하였다. 친구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으며 모르고 지냈던 점들을 알게 되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어서 감사하다(솔잎).

내가 이 활동에 참여한 동기는 친구와 더더욱 친해지고 싶기 때문이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다. 그런데 하는 도중에 힘든 점이 있었다. 무엇이냐면 왕따 체험이다. 그리고 나-전달법과 너-전달법이 조금씩 힘이 들었다. 그래도 이 활동에 참여를 잘 한 것 같았다. 같이 놀지 않던 친구하고도 놀게 되었고 다른 친구하고도 더 친하게 된 것 같다. 친구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내 생각을 말하는 방법을 잘 알았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이 나오면 참가할 것이다(크라피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친구와 친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다. 내 마음을 발표하는게 좀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다른 친구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친구와 더욱 친해지고 싶다. 앞으로 여러 친구와 사이좋게 놀 것이다(해피투)

참여하게 된 동기는 친구와 더 친해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친구와 친해지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며 친구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친구들과 더 친하게 지낼 것이다(해피)

참여하게 된 동기는 친구들과 더 친하게 지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친구랑 어떻게 하면 친해지는지를 배웠고 재미있었다. 어려운 점은 친구의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을 다 이해해주지 못할 때였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를 잘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여러 친구들과 친하게 지낼 것이다(발발이)

참여하게 된 이유는 친구와 친해지려고 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진짜로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진행 도중에 친구의 생각

이나 느낌을 알게 되었고 친구에게 왕따를 시키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예전보다 친구가 더 좋아졌다(화빨소).

처음 시작할 때는 그저 그랬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친구들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고 친구들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 선생님이 내 주신 문제는 어려웠다. 앞으로 친구와 사이좋게 지낼 것이다(장우혁).

내가 옹어졌을 때 친구가 달려와서 위로해줬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친구와 함께 말하고 활동하는 것이 재미있었고 내 마음과 행동이 달라졌다. 수호천사를 발표하고 느낀 점을 말 할 때 떨렸다. 친구와 잘 지내는 방법을 공부하였고 이제 친구들이 나와 놀아주고 말도 같이 해서 좋다(아이바)

